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조 라이트 감독의 영화 '솔로리스트'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담담하게 진행되는 실화 영화다. 작품은 유명한 저널리스트 스티브 로페즈(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정신분열증을 겪고있는 길거리 악사 나다니엘 안소니 아이어스(제이미 폭스)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나다니엘을 만날 즈음 스티브의 삶은 거의 밑바닥 상태. 이혼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그의 심신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한 줄기 구원의 빛같은 음악소리를 듣게되는 스티브.

나다니엘의 천부적인 음악 실력과 열정에 감화된 그는 그가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연민과 도움의 손길이 아닌 진정한 우정과 소통의 방식이라는 점을 서서히 깨닫는다. 그리고 황폐한

영화음악가 다리오 마리아벨리는 영웅 교향곡의 주제 선율을 잘게 쪼갬 다음, 이 멜로디들에 베토벤의 다른 작품 선율을 덧붙여 감각적인 사운드트랙을 만들었다. 연주는 젊은 거장 예사 페카 살로넨과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았다(영화의 말미에서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직접 출연한다).

이 훌륭한 오리지널 스코어 덕분에 영화를 본 후 전곡을 들으면 베토벤 영웅 교향곡의 구조와 멜로디 라인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베토벤의 교향곡은 녹음수도 수백 종에 이른다. 과거에는 대편성으로 장엄하게 연주된 해석들이 득세하다가 근래에는 편성을 줄이고 원전악기를 동반한 녹음들이 유행했다. 곡의 유명세만큼 연주는 많지만, 이렇다 할 새로운 음반이 없



젊음! 그 열정과 꿈

<1> 타악 그룹 얼수 박연희씨

작렬하는 태양도, 찌는듯한 무더위도 이들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연습실에서, 화실에서 붉은 땀방울을 흘리며 자신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만났다. 그들이 있어 광주 문화계의 미래는 장밋빛이다.

지난달 12일 광주 빛고을문화관에서 열린 '오!광주 페스티벌'의 '얼수' 공연 현장.

탄탄한 근육의 건강한 사내 6명이 쏟아내는 파워풀한 타악 비트는 관객들의 심장을 쿵쿵거리게 만들었다. 이날 북과 장구, 대북을 치는 남자들 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다. '얼수'의 흥일적인 박연희(28)씨. 4개의 북을 동시에 두드리며 남자들 사이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녀가 눈에 확 들어왔다.

다음날 박씨를 만나고 깜짝 놀랐다. 160cm가 안되는 키에 가녀린 몸매. 도대체 어디서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걸까 의아스러웠다. "무대에서 너무 크게 보여 존재감이 뚜렷했다"는 말에 그녀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선배를 따라가려면 뭐 아직 멀었죠. 실력이 선배들 앞에 차지 않을때도 계속 무대에 세워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실전에서 배우는 게 진짜 많거든요. 본격적인 무대 공연을 한 지는 한달 정도 되는데 무대에서 북 두드리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아무래도 여자니까 파워가 팔팔까 고민도 많지만, 그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까지 두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도 민속음악 접해 복 친숙 끝없는 연습 힘들지만 무대 서면 힘이 펄펄



얼수의 타악 연주자 박연희씨는 남성 못지 않는 파워를 과시하며 무대를 장악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솔로리스트' 중 베토벤 교향곡 제3번 '영웅'

소통과 화해를 위한 새로운 통로

삶을 살고있던 스티브 자신이 오히려 나다니엘과 소통하며 변화한다. 도움을 손길을 주려던 이가 도리어 도움을 받게되는 아이러니.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소통의 드라마가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한 '소통'과 '화해'라는 두 단어를 정의하고 싶었던 것이다.

영화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음악은 베토벤의 작품들이다. 나다니엘의 삶을 유일하게 지탱시켜주는 음악이 바로 베토벤. 귀가 멀어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채 살았던 베토벤의 삶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나다니엘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가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3번의 멜로디들은 바이올린 및 첼로 독주, 스캐츠 등의 형태로 변주되고, 편곡되어 영화의 전편에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어진다.

었던 것이 현실. 하지만 근래에 베토벤 교향곡의 연주사에 한 획을 그은 녹음이 등장했다. 바로 데이빗 진만과 취리히 톨합레 오케스트라의 베렌라이터 판본 연주다.

지금까지 통용되어온 악보가 아닌, 베토벤의 의도와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새로운 악보에 의한 연주. '영웅'이라는 두 글자에 감박관념처럼 갖혀있던 이 교향곡은 진만의 손에 의해 아주 자유롭게 경쾌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념살대는 리듬과 유려한 선율, 18세기 춤곡을 연상시키는 생쾌하고 간결한 해석은 이후 베토벤 연주사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진만의 연주는 악보와의 새로운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 '진짜 새로운' 베토벤이다.

<독립영화감독·칼럼니스트>



일상의 조각 잇고 붙이고...

3일까지 갤러리 D 임수영 개인전

삶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조각들을 모자이크 형식으로 이어붙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서양화가 임수영씨가 오는 3일까지 광주 갤러리 D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임씨는 무수한 일상의 다양한 의미와 느낌을 전해주는 '일상으로부터' 연작을 선보인다.

검정, 노랑, 빨강 등 강렬한 색의 대비는 입체감을 선사하고, 모자이크 조각들은 들쭉날쭉한 질감을 준다. 또 화사한 색채와 과감한 선의 율동은 추상 회화가 주는 강한 울림을 전해준다. 우석대 회화과와 같은 대학원을 나온 뒤 9차례 개인전과 현대미술 100인의 형형색색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상으로 부터'

국립광주박물관 2일~11월 20일

국립광주박물관은 2일~11월 20일 동물을 소재로 한 조선시대 회화를 선보이는 '조선시대 동물을 만나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소와 말 등 짐승과 새, 꽃을 소재로 한 영모화(翎毛畵)를 선보인다.

김식(1579~1662년)의 소 그림과 우리 지역 출신의 윤두서(1668~1715년)의 말 그림, 조선 중기 문인화가 조지운의 고양이가 그림과 조석진의 개 그림 등 흥미로운 작품이 많다. 또 다양한 동물이 어우러진 장승업의 병



허백련 '화조도'

풍과 원숭이, 두꺼비, 다람쥐, 상상의 동물인 용까지 표현된 그림이 곁들여진다. 문의 062-570-70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시속 300KM! 말처럼 달린다! 상담원원결 방편--(1번 or 2번)--0번 1588-7941

상무점 컬럼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3 (12세)
3관 퀵 (15세)
4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5관 마당을 나온 암탉 / 퀵 (15세)
6관 트랜스포머3 (12세)
7관 고지전 (15세)
8관 고지전 (15세)
9관 씨니 (15세)
10관 카2 / 극장판 도라에몽 (전체)
리뉴얼 오만년 BIG EVENT! 500만원 상영의 경이행사! 달라진 컬럼버스상무점을 소개하면 행운의 경품이 방망

고지전 구. 런던역국사거리 1544-0600

MEGABOX
M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최고급관
2관 고지전 (15세)
3관 극장판 도라에몽 (전체)
4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6관 고지전 (15세)
7관 퀵 (15세)
8관 리오 (전체) / 퍼스더벤쳐 (12세)
9관 퍼스더벤쳐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타워, 황금주치빌딩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지구인 운명을 건 최후의 전면전!
복구보건소 건너편 1544-0070

CINUS
1관 퀵 (15세)
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3 (12세)
3관 마당을 나온 암탉 (전체) / 고지전 (15세)
4관 헤리포터와 죽음의 성물2 (전체)
5관 씨니 (15세) / 카2 (전체)
6관 리오 (전체)
7관 고지전 (15세)
색깔있는 영화선택 \*www.cinus.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